

약속의 땅 IV.

언약관계 안에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1. 사람이란?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이것은 ‘나’에 대한 질문이며, ‘너’에 대한 질문이며, ‘우리’에 대한 질문이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할까? 사람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가장 큰 질문은 ‘사람’에 관한 질문이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드라마틱한 인생의 주체자인 다윗은 이 해답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얻는다.

[시편 8:4-5]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대

4 what is man that you are mindful of him, the son of the man that you care for him?

2. 사람!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27-28]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는 비추어졌다는 것이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비추어진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가? 초능력자, 신화에 나오는 초월적 존재의 모습인가? 아니다. 그 답은 27절 후반부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만 한 몸’의 존재이다. 성경에서 한 몸의 의미는 마가복음 10:6-9절에 있다.

[마가복음 10:6-9] 6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7 이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8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9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본질은 ‘한 몸’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이다. 한 몸을 이룬 상태를 ‘결혼’이라 말한다. 언약적 관계이다. 언약적 관계란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관계이다. 왜 사람이 나눌 수 없는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차원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때 창세기 1:28절에 나타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일’의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창세기에 언급된 원형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이다. 하나님 형상의 회복, 즉 함께하는 존재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3. 언약적 관계가 필요한 이유

[전도서 4:7-11] 7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8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9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무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11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1) **7,8절** - 전도자가 본 세상의 헛된 일은 무엇인가? 헛된 일은 공허한 일을 말한다. 땀을 흘렸는데 왜 흘렸는지 모르는 것이다. 이 사람은 쉬지 않고 일만 하고 재산도 모았는데, 왜 즐기지도 못하고, 자기가 수고한 일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라 생각하는가? 그 답은 8절 첫 구절에 있다. ‘한 남자가 있는데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살기 때문’이다.

(2) **9절** - 9절은 진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을 말한다. 허무하지 않은 존재적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답을 말한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되는 것이다’

(3) **10절** - 두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혼자 가다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생은 넘어지는 것이다.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넘어짐도 있을 수 있지만,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 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4) **11절** - 혼자는 따뜻하지 않다. 인생에 반드시 추운 계절이 있다.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답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존재적 외로움의 추위는 난방 시설로, 밉코트라도 해결되지 않는다. ‘언약적 관계’의 한 사람이 필요한 실재적 이유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 대한 답을 ‘함께’에 두셨다.

4. 언약적 관계 - 십자가

[마가복음 14:24]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 수직적관계 : 하나님과의 관계 / 수평적관계 :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성경적으로 언약 관계 위에 있다. 그 예가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 만찬이다. 예수님 언약의 피를 나누셨다. 예수님과 나누었고, 서로가 나누었다. 명심할 것은 언약관계가 아니고서는 진정으로 하나 된 몸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언약관계가 중요하다. 언약관계가 아니고서는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5. 언약 관계의 작동

'희생'에 의해 작동된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이 그 예이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내가 녹아야 한다. 그때 하나가 된다. 뜨거운 용광로에서 녹일 때 정금이 된다.

[히브리서 9:16-22] 16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18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1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3:16-17]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언약의 작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희생이다. 언약 관계의 작동원리 '희생'은 무엇인가? 희생은 사랑의 본질이다. 요한복음 3: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는 예수를 내려놓는(희생) 것이었다. 그러므로 언약 관계의 작동은 나를 내려놓는(laying down) 것이다. 사랑은 희생이며, 구체적으로 나를 laying down 하는 것이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 말씀하셨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1) 욕 (자기-ego)

욕의 동기는 언제나 '자기-ego'이다. 내가 원하고, 내가 느끼고, 내 생각이 언제나 동기가 된다. 그러나 언약의 몸은 자기가 죽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다. 한 몸의 원리에서 중요한 것은, 그 원리가 우리 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형제가 원하는 것, 내 형제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2) 우리 (서로)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약 관계를 '서로'를 말한다. 서로 발을 씻으라 / 서로 세워주라 / 서로 가르치라 / 서로 섬기라 등 언약적 관계는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이다. 원리는 적용할 때 작동한다. 반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이제 '나' 대신 '우리'를 대체하라. 예수님은 언제나 'I' 대신 'we'를 사용하셨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라. 우리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이다.

6. 언약적 관계 - '나오미와 룯의 관계'

[룯기 1:15-18] 15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 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 나오미가 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 룯의 굳은 결심 - 언약적 관계는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이다. 룯이 나오미의 권유대로 자기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언약적 관계는 그 당연함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이다. 부부관계, 형제 관계 - 공동체 관계 - 스승과 제자, 멘토와 멘티, 서로에게 :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이다.

(2) 열정과 희생 - 나오미와 룯의 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언약적 관계의 핵심'은 열정(passion)과 희생(sacrifice)이 함께 있는 것이다. 관계는 열정의 사랑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그것이 희생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열정만으로 한 몸을 유지할 수 없다. 언약은 17절 룯의 고백처럼 '당신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합니다'라는 고백이다. 당신의 유익이 나의 유익이라는 we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한 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 '몸'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

조이풀에게 있어 이번 성탄은 '위드(임마누엘)' 함께의 성탄이다. 우리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 수 없지만, 함께의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루는 일이다.

